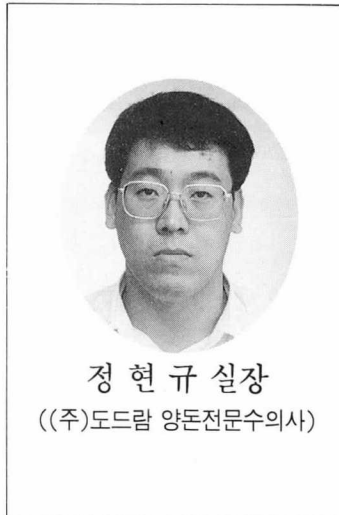


세계화에 앞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해야

지난 해 연말 국정외 제1 목표를 '세계화'라는 단어로 집약시킨후, 각 언론매체에서 '세계화'라는 말은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되었다. 이 글을 쓰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도 '당신의 세계화 점수는?'이라는 주제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각 개인의 세계화 정도를 점수로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100점 만점의 시험문제중에는 '당신은 우리 한복에 대하여 우리말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10점짜리 항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오늘의 외환(달러와 마르크화) 시세를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도 10점짜리였다.

우리 양돈인들이라면 이 질문에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세계화라면 당연히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라는 것



정 현 규 실장
((주)도드람 양돈전문수의사)

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한번 '세계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하는 일들이다.

각설하고 우리의 양돈산업은 싫든 좋든 세계화 라는 길로 떠밀려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길을 찾아 갈 것인가, 복잡한 시장속의 인파에 밀려 밀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 아무 것도 사지 못하고 돌아올 것

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세계화 걸림돌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해보았으면 한다.

1. 우리 양돈의 위치를 모른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양돈가중 90% 정도는 각자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예를들면 "지난 1년간 출하두수가 몇 두 였는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는 농장이 거의 없었다. "현재 사육두수는?"이라는 질문에 답변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 각자 농장의 원가도 대충 1,300원 정도라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목표는 있는데 내 위치를 모르니 돼지고기 수입자유화가 되었을 때 내가 어디쯤 있을지

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항상 불평만 있을 뿐이다.

1) 내 농장 성적도 모른다.

앞서 설명한 출하두수, 사육두수, 원가를 모르는 농장이라면 내지역, 우리나라 전체 양돈산업을 논한다는 것도 모순일진데 세계화는 무슨 말인가?

오늘 라디오에서 '세계화 시험' 100점 만점중 왜? '우리한복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10점이나 차지하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양돈의 세계화에 대한 대답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양돈장을 방문하는 일이 내업무인 양돈수의사 입장에서 보면 각 양돈가는 세계화라는 단어와 수입자유화에 대해 논하기 전에 기본 자격을 먼저 생각하였으면 한다.

내 현재위치를 아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아래 문제 5가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세계화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 ① 우리농장의 총 사육두수와 모돈두수는?
- ② 지난 1년간 총 출하두수 및 체중은?
- ③ 우리농장의 지난 1년간 총 사료소비량 및 그 비용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경쟁상대를 알기 위한 노력은 현장에 밀착된 전문가 집단의 연구와 교육에 의해 더욱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

④ 우리농장의 kg당 생산 원가는 (감가상각비 포함)?

⑤ 지난 1년간 총 수입 금액은?

이 5가지 문제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양돈인, 양돈장, 양돈산업이 세계화로 가는 첫번째 걸림돌이다.

2) 경쟁상대와 비교한 우리 양돈 산업을 잘 모른다.

우리 경쟁상대는 누구인가? 미국, 덴마크, 네델란드, 일본, 대만의 양돈인 그누구라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잘 모른다. 일부 잡지나 신문에 소개된 생산성과 원가만 가지고서 그들(우리의 경쟁상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양돈인은 무슨 박람회에 다녀와서 그들의 멋진 돈사를 한번 쳐다보고는 그들의 양

돈을 알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다른 나라의 성적, 생산원가, 농장시설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관리방법, 경영방법, 양돈산업 전체의 구조, 조직운영방법을 알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혹은 기술 연수를 하든지 하는 직업이 얼마나 있었는가?

공산품의 경우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니 단순히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상대 정보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지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우리 양돈산업에 종사하는 양돈인들이 하든지, 협회나 축협같은 큰 조직 혹은 정부차원에서라도 '양돈산업은 국제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이나 단순 수치보다는 그들의 기술을 알아내고 우리 것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우

리는 이런 세밀한 작업에는 소홀히 해왔음을 인정하고 이것도 세계화의 두번째 걸림돌임을 깨닫자.

2. 현장에 밀착된 전문가 조직이 없다.

양돈을 하는 사람들의 불평 속에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얼마전 TV에서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년 연구비가 미국이나 일본의 한기업의 연구비만 못하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일본에 가면 전농(우리나라의 농협중앙회)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중앙연구소가 있고 또 그곳에는 '양돈연구실'이 있어서 이곳에서도 양돈 사양관리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그 기술을 농가에 보급한다. 또한 축산시험장에도 양돈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곳이 별개의 시험장으로 있다. 그외에도 민간 단체중심으로 양돈 전문가가 모여 이룬 전문 서비스기업들이 웬만한 지역에는 있다. 네델란드에도 전국적인 인티그레이션 민간 양돈조직속에서 움직이는 양돈 전문가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관련산업 특히 정보전달체계의 발달은 양돈산업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화 즉 국가간 경쟁시대에 중요한 무기로써 작용한다.

이외에도 세계 곳곳에 양돈 산업이 발전한 나라엔 민간 조직이건, 정부조직이건 양돈 전문가들이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는 업계와 밀착된 조직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농촌진흥청 내에 조직(기후 변경전, 축산시험장 양돈과)이 있으나 업계와 밀착된 조직은 없다. 지도소, 축협에도 양돈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직이 있어서 생산, 시설, 질병 등에 각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양돈인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역(도단위)에도 이런 조직을 활성화 시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는 이런 전문가조직이 부족하다는 것이 양돈 산업 세계화의 세번째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3. 수입자유화를 먼저 겪는 일본을 연구하자.

앞서 일부 이야기한 내용의 중복이 되는 내용이지만, 다시 덧붙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몇가지가 있다.

우리 양돈인에게 세계화라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밀려들어오는 양돈(고기, 종돈)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수출창구인 일본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양돈산업이 세계화라는 길목에 있는 일본이라는 시장에서의 싸움에서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우리의 양돈산업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돼지고기 유통구조, 돼지고기 소비자의 기

호도, 전체산업의 전반적인 경기전망, 환율까지도 우리 양돈인들은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더 중요하게 일본 양돈산업을 연구하자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5년 정도 앞서서 우리가 겪어야 될 수입 자유화 그리고 세계시장과의 경쟁을 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이 우리 가까이 있으니 우리의 세계화에 타산지적으로 삼기 위해서다.

우리보다 앞서서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고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미래를 개척한다는 점에서 그 과정을 연구해 볼만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독일에 많은 사람을 보내서 자료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는 북한진출에 대비해 담당부서까지 만들어 연구조사하는데, 우리 양돈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들도 우리보다 5년 먼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일본을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계화로 가는 우리 양돈 산업의 번째 걸림돌이라고 본다.

4. 소비자를 향한 생산과 유통이 부족하다.



중돈 개량사업도 양돈 국제화의 해결 과제로 경쟁력 향상의 기본사업이다.

1) 위생문제와 육질

최근 소비자를 의식한 생산을 하기 시작한 농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소비자야 어떻게나 생산해서 팔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다.

도축장에서선진국과 비교하면 위생적인 처리가 부족하다. 이것은 일본으로 냉장육을 많이 수출하는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다.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혀 양돈이나 도축장과 무관한 사람이 도축과정을 본다면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량이 줄지도 모른다. 위생문제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사육과정에서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도축과정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다면 소비자들은

우리양돈인이 생산한 고기를 외면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에 정부에서부터 이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약제 잔류검사강화와 도축장 시설 현대화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위생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양돈산업이 다섯번째로 해결해야 될 세계화 과제라고 본다.

2) 생산자 중심의 유통체제와 브랜드화

소비자는 가능한한 싼 값에 생산자는 비싼 값에 좋은 고기를 사고 팔기를 원한다. 그러나 최근 소비추세를 보면 품질이 좋은 고기라면 좀 비싸더라도 원하는 소비자가 있다. 그리고

고급 소비자는 우리 양돈 관련자들이 점점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길이 우리 양돈이 살아갈 길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라고 해서 많은 외국의 품질좋은 고기가 우리 소비자를 둘러싸게 될때, 우리 양돈인들이 외국의 돼지고기를 수입, 판매하고 소비만 하는 국민으로 전락할 것인가, 최근 일부 단체나 양돈장에서 자체품질 개선으로 고급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유통에 참여해서 각자의 고유 브랜드로 돈육 시장에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렇게 브랜드화와 유통에의 참여로 기반을 갖춘 양돈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이 높다.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세계화의 필수조건이다. 이것이 여섯번째로 우리가 세계화로 가는길에 거쳐야 할 일이라고 본다.

5. 종돈개량 및 관련 산업의 발전있어야

1) 종돈개량이 되어야

금년에도 수천마리의 종돈이 수입된다고 한다. 물론 발전을 위해 수입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맞는 종돈도 생산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갱신용으로 일부 도입

66

세계화라고 해서

많은 외국의 품질좋은 고기가
우리 소비자를 둘러싸게 될때,
우리 양돈인들이 외국의 돼지고기를 수입,
판매하고 소비만 하는 국민으로 전락할 것인가,
최근 일부 단체나 양돈장에서 자체품질 개선으로
고급제품을 생산하고, 직접 유통에 참여해서
각자의 고유 브랜드로 돈육 시장에서 나름
대로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99

하는 것은 장려할 만하다. 그러나 200~300만원씩 주고 수입한 종돈을 가지고 개량하기 보다는 단순히 분만시켜서 그 자돈을 종돈으로 팔기 위해서 수입한다면 문제라고 본다.

또, 일부 비육돈 농장에서조차 비싼 외국종돈을 수입해 쓰려는 것은 문제가 아닌지?

다행히 일부에서 계통조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안심되지만, 무조건 외국에서 종돈을 수입해다 쓰는 것 특히 비육농장에서조차 종돈 수입을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세계화의 산물인지!

이것도 일곱번째의 문제라고 본다.

2) 관련 산업이 발전해야

양돈산업이라면 단순히 고기

생산 뿐 아니라 시설이나 사료,약품, 관련된 사람들의 의식 등 모두를 포함한다. 그런면에서 볼 때 규모의 확대와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을 위한 시설산업, 사료산업이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양돈인만이 노력한다고 양돈산업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다. 시설이 나쁘고, 사료가 나쁘고, 치료할 약품마저 없다면 어떨 것인가? 하다 못해 도로 시설이 나쁘다면 돼지를 비롯한 필요기자재의 운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축산업,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이 발전될때 양돈산업의 발전도 가능하다.

성수대교 붕괴의 여파가 사료운송비 상승, 서울로 돼지 출하하기 위한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지금 양돈인이 겪는 피해만 보아도 금방 느낄 일이다.